

발족 선언문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

가부장제 사회는 성별분업의 이름으로, 노동력 재생산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억압해왔다.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한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대상화되고 도구화되어 가부장제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이 소유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가부장'이 여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여성들의 일상은 끊임 없는 규제와 통제로 이루어진다.

성폭력을 당하여도 그것은 여성의 잘못이다. 경제가 위태로우면 그것도 가정을 도외시하는 '주부'들의 탓이 된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것 또한 '어머니'의 탓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면 그것은 여대생들의 탓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만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함께 모여 싸워나가기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어느 누구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운동은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운동이다.

여성자치연합은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여성 문제는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다. 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들은 소외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싸워나갈 것이며 그리고 더 이상 흩어져 있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모인 것이다. 가부장들에게 구속돼 있는 우리의 육체를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가부장제가 우리를 하나로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다양성으로 투쟁한다.

가부장제가 우리를 흩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뭉친다. “

1997년 3월 17일 여성자치연합